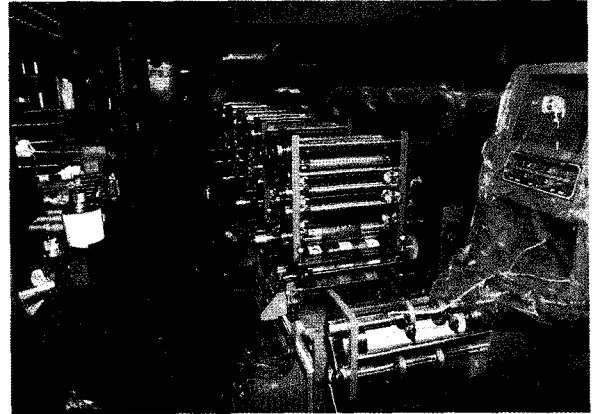


라벨인쇄기 전문 제조업체인 방성기계(대표 장완섭, www.bangsung.co.kr)가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에 주력 제품인 로터리 인쇄기 Art Line300 및 BSR30과 평압라벨인쇄기에 대해 활발한 수출을 진행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성기계는 지난 수 년간 세계 전역에서 열리는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해외바이어 초청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해외고객으로부터 탄탄한 신뢰를 얻고 있으며, 풍부한 해외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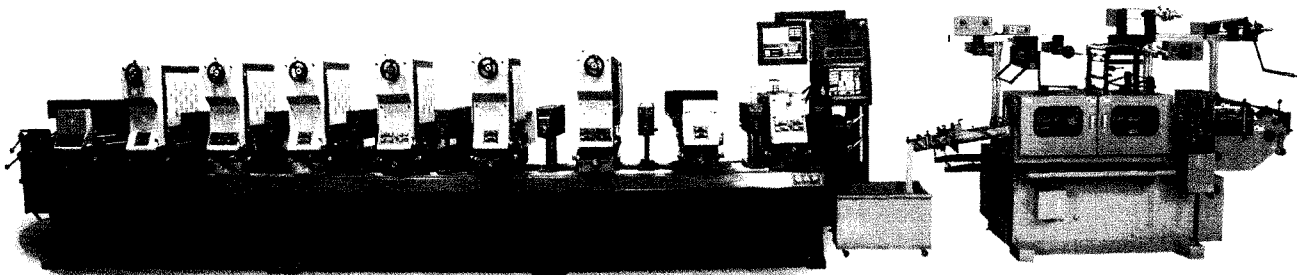
호황의 라벨 인쇄기 시장

방성기계의 이러한 바쁨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라벨 인쇄기들의 품질이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방성기계는 간헐식 로터리 라벨 인쇄기(Intermittent Label Printing Machine)와 평압식 라벨 인쇄기를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다.

1993년 창업 이래 줄곧 로터리 라벨 인쇄기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해 오면서 라벨인쇄업계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으로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의 진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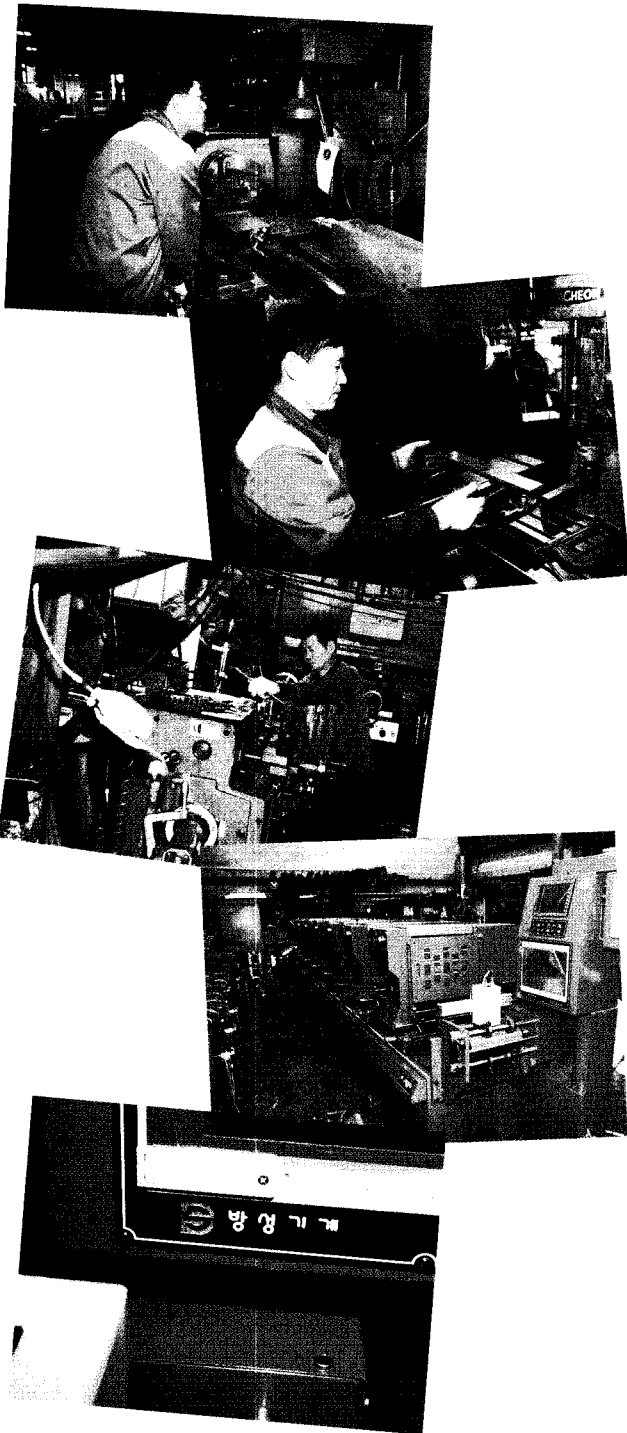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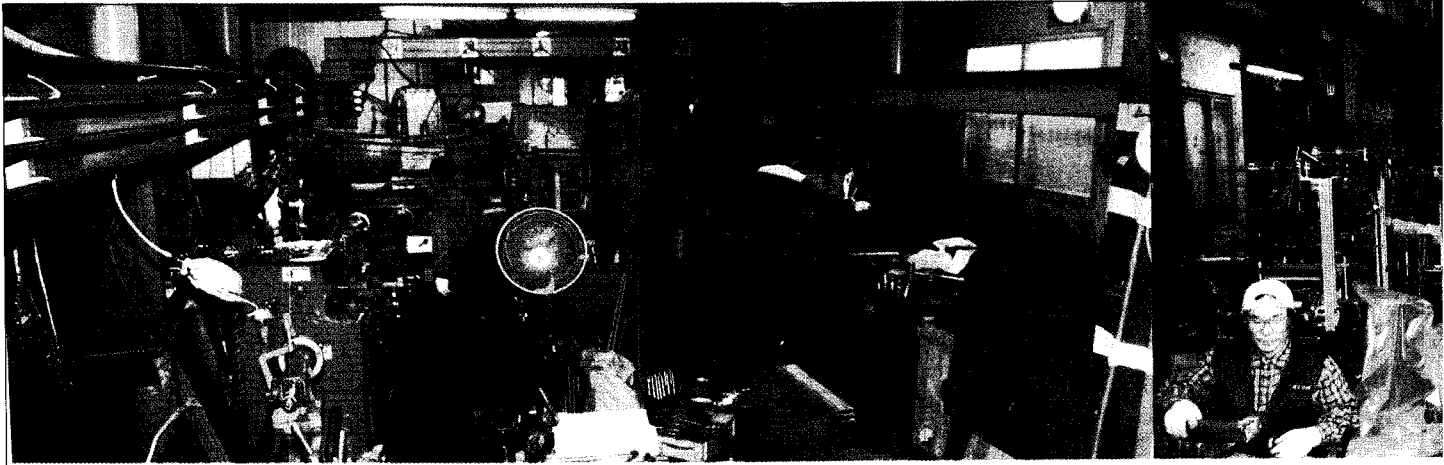
연혁

- 2004년 KIPES 로터리 4, 6도 전시
로터리 미주지역 수출
인도 대리점 개설
중국 대리점 개설
인도 전시회 참가
- 2003년 태국 대리점 개설
- 2002년 KIPES 로터리 배면인쇄 신제품 출시
- 2001년 미주지역 프레스 수출
말레이시아 로터리 전시
- 2000년 KIPES 로터리 전시
- 1999년 로터리 첫 기계 출시
- 1998년 로터리개발
방성기계 자가 공장 준공 이전
동남아 수출 본격 추진
- 1997년 말레이시아 대리점 개설
- 1995년 공장확장 이전
- 1993년 방성기계 설립



BSR30

전면, 후면인쇄, 금·은박, 라미네이팅 도무송 그리고 타공(펀칭)이 반복 작업 없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작업 능률이 2~3배 향상되었다. 또한 인쇄부에 반복 작업이 가능함으로서 고품질의 다색인쇄도 가능하다.



해외 진출에 대한 커다란 자신감

방성기계의 라벨 인쇄기들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 태국, 터키, 인도, 러시아, 중국 등 10여개 국가에 수출이 되고 있으며 제품의 성능에 비해 적당한 가격도 인기의 비결이다. 특히, 2~3년 내에 국내 라벨 인쇄기의 보급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방성기계는 지금 보다 더 해외로 눈을 돌리려 하고 있다.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에는 커다란 자신감을 갖는다. 세계 유수의 라벨 인쇄기 브랜드와 겨루어도 빠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세계의 톱 브랜드에게는 기계 성능이나 품질면에서 조금은 뒤지는 부분이 있지만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톱 브랜드와의 경쟁도 승산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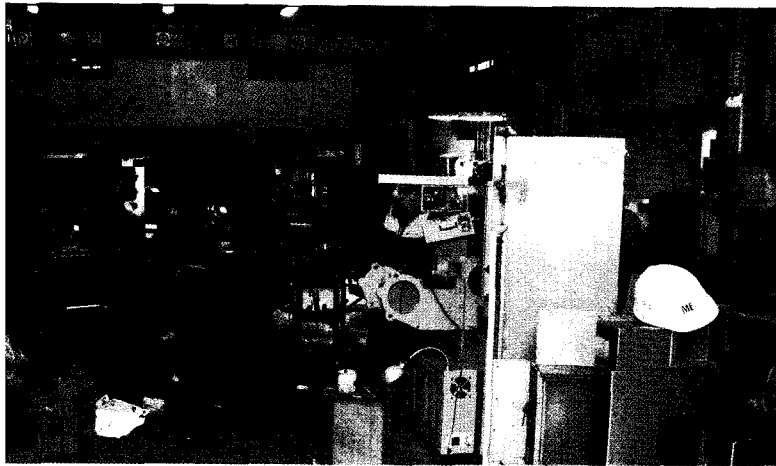
특히, 경제 성장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세계 톱 브랜드의 라벨 인쇄기를 구입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쉽지 않은 문제지만 방성기계의 제품이라면 대접이 달라진다. 인쇄 품질에 있어서는 톱 브랜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미 태국 등 동남아에서는 방성기계가 톱 브랜드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편리한 사용, 경제적인 운용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은 방성기계의 라벨 인쇄기가 초보자라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정하고자 하는 피드백에 맞춰 수치를 입력하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 운영이 이루어진다. 서보모터 구동을 통해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누구라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

제어시스템에 내장된 프로그램은 방성기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에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사용자에게 쓰기 편하면서도, 보다 간단한 조작으로 기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용자를 먼저 배려하는 방성기계의 깊은 생각이 담겨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용자를 먼저 생각하는 부분은 기계의 크기에서도 나타난다. 방성기계의 로터리 라벨 인쇄기는 기계의 사이즈는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작은 공간



차 한 잔 >> 정완섭 대표

신뢰를 바탕으로 기계 제작

대표님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좌우명이랄 것은 없고 지난 1987년 해동기계에서 인쇄업종과 인연을 맺은 뒤로 지금까지 저의 인생철학은 바로 신뢰입니다. 자본과 달리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회사 내에서도 20여명의 직원들과 서로간의 신뢰가 있었기에 작업의 능률과 더불어 직원 상호간에 연결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방성기계의 제품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지요?

현재 저희는 태국, 중국, 터키, 인도, 러시아, 베트남 등 10여개 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방성이 톱 브랜드라 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가격 대비 높은 품질의 설비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벨 인쇄기를 만들면서 기계가 아닌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금은박, 라미네이팅, 톱슨, 펀칭 등 번거로운 라벨 생산 공정을 일괄적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일괄처리 기능은 방성의 라벨 인쇄기에 대한 우수성을 살펴 볼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이다.

이 밖에도, 방성 로터리 라벨 인쇄기는 반복 작업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전면과 후면 인쇄한 후 필요한 색도의 인쇄를 추가적으로 인쇄할 수 있어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다색 인쇄가 가능하다.

A/S가 필요 없는 기계

방성기계에서는 모든 부품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추구하고 있다. 생산되는 라벨 인쇄기를 완벽한 도면을 통해 표준화, 규격화된 부품으로 제품의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품의 표준화, 규격화를 통해 방성에서는 A/S없는 제품 생산을 지향하고 있다.

모든 부품들을 단순화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도면을 보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격화된 치수의 부품을 사용하면서 부품의 일괄적인 주문과 표준화를 통한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해져 생산성의 향상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또한 A/S에 대한 요구도 많지 않아 별도의 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어 인건비의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방성기계에서는 앞으로 오프셋 방식의 라벨 인쇄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프셋 방식의 라벨 인쇄기는 앞선 일본업체에서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의 라벨 인쇄기로 평가되고 있다. 방성기계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동제어 프로그램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올해 하반기쯤에는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방성기계에서는 작년 12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방리로 사옥을 이전했다.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방성기계는 세계 일류의 경쟁업체 제품을 벤치마킹하면서 제품 경쟁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포스트에 해외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온 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단한 노력이 현재의 국내시장 불황 극복에 큰 보

탔이 되고 있기에 앞으로도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